

해외의약뉴스

ADHD 치료제가 비만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ADHD 치료제가 비만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결과 아동기(childhood)에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 ADHD 증세가 치료되지 않았거나 치료제 없이 치료한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ADHD 치료제로 치료받은 아이들의 체질량지수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ADHD 치료제로 치료받은 아이들의 체질량지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키워드

ADHD 치료제, 비만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비만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보건대학원(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의 비만 위험의 증가는 ADHD가 아닌 ADHD 치료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ADHD는 아동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이를 위한 치료제는 없지만 이 증세를 관리하기 위해 리탈린(Ritalin)이나 콘서타(Concerta) 같은 각성제(stimulant medication)가 많이 사용된다.

최근의 연구는 ADHD와 비만이 관련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메디컬뉴스투데이는 어린 시절에 ADHD를 경험한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체질량지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특징이 나쁜 식습관으로 발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체중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현재까지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각성제와 체중증가의 연관성을 조사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¹⁾는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ADHD 증세가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ADHD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성제의 복용이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 3세에서 18세 사이의 163,820명의 아이들의

1) 주제에 대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반복된 관찰을 포함하는 상관관계 연구이다. 종단 연구는 흔히 평생 동안에 걸친 발달추세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의 예측 요인을 밝히기 위해 의학 분야에서 시도된다.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어린이들의 ADHD 치료제 복용은 청소년기 체질량지수의 빠른 증가로 이어진다.

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 아동기(childhood) 기간 동안 ADHD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 ADHD를 경험하였지만 증세가 치료되지 않았거나 ADHD 치료제 없이 치료한 아이들의 체질량지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기 초기에는 각성제로 치료받은 아이들의 체질량지수는 느리게 증가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일반아이들이나 각성제로 치료받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들은 각성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결과가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비만의 위험이 높다고 제시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ADHD 자체 보다는 ADHD 치료제 복용으로 비롯되는 것이므로 ADHD의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각성제가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 아이들의 체질량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요약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연구는 각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기의 ADHD가 높은 체질량지수와 연관성이 있다는 첫 번째 종단적인 증거(longitudinal evidence)를 제시한다.

반대로 각성제를 사용하여 치료한 ADHD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초기에는 천천히 증가하지만, 청소년기에는 ADHD의 증세가 없는 아이들이나 각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ADHD 아동들보다 체질량지수가 높은 반전을 보였다. 조사결과는 임상적, 신경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결과이다.

연구진들은 임상학자들이 ADHD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각성제를 사용하여 치료할 경우 비만 위험의 연관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ADHD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 예방 전략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메디컬뉴스투데이는 미국 내 ADHD 진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질병관리본부(CDC)의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ADHD를 진단받은 어린이들에 비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이 200만 명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고, 과거보다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ADHD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74146.php>